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31일~6월 23일 전주시 일원서 유명 작가 강연·전시·공연·체험·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원화 전시, 강연, 공연, 체험, 북마켓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하 도서전)에서는 △그림책 콘퍼런스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일화 전시 △학생 단체프로그램 등이 신규 개설되는 등 지난해보다 확대된 6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현충일)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출발해 도서관 해설과 함께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림책 투어버스와 전주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팔복예술공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먼저 도서전의 메인 행사인 그림책 작가 초청 원화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대표 작가인 권윤덕 작가와 니콜라우스 하이델호프 작가의 원화를 만나 볼 수 있다.



전주시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

또한 지역의 신인 그림책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작-작가전'에서는 지난해 처음 운영된 '그림책 작가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한 작가 12명의 그림책과 원화, 더미북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올해 도서전에서는 그림책 작가와 번역가, 편집자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강연이 총 16회에 걸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곳곳에서 펼쳐

진다. 올해 도서전에는 그림책의 주요 독자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원화전 관람과 해설,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학생 단체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여기에 전국 그림책 대표 25개 출판사가 참여해 그림책과 굿즈 등을 판매

하는 북마켓이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한태희 작가와 김경연 번역가의 강연 등 작가 참여 프로그램과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출판사 북마켓이 운영하는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해 주변 음식점 부족에 따른 행사장 편의성을 개선하고, 휴게 및 책 읽는 공간 조성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림책 강연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독자들은 도서전 공식 누리집(jip.jonju.go.kr)을 통해 사전접수 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8)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최근 차기 K-컬처 주자로 꼽히고 있는 그림책을 기반으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림책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단편영화 제작 지원

29일까지 사업 참여 작품 공모... 작품당 최대 800만원

전주시가 대한민국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이끌 영화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화제작 인력 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2024 전주영상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000만 원으로, 작품당 최대 800만 원까지 6편 내외의 단편영화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영화 연출자이면서 △지역 거주자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지역 내 영화·영상 기관 또는 단체 활동 영화인 등 3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전주영상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지원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제작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영상위원회 전자우편(jicqr@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전화(063-286-0422)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주영상위원회 관계자는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매해 지역 영화인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펼쳐 보이는 등문이다"며 "단편영화를 준비하는 예비 영화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눈 뜨고 코 베이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헤어질 결심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 열려

전주시가 장래식 부고문자 스미싱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특강을 열었다.

시는 21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눈 뜨고 코 베이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헤어질 결심'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일상 속 당연한 행위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홍콩 ELS사태로 대표되는 금융상품 불안전파 △지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성 국장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로,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사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다수의 강연에 나서고 있는 금융전문가다.

성 국장은 이날 강좌에서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던 금융사기가 로맨스 스캠과 주식리딩방 등 가상현실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고수익이면서 원



전주시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헤어질 결심'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금이 보장되는 투지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한번의 실수로 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와 함께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

고 있으며, 지역인재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기관의 취업을 돕고 있다.

한병산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사회 전반에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자칫 시민들이 금융사기로 큰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교육이 금융사기를 인식하고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국민체력 100 전주체력인증센터 운영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체력 100 전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체력100 전주체력인증센터는 개인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맞는 1:1 운동 처방을 해주는 국가공인 체력인증기관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주시체육관 2층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현재 전주시체육회에서 맡고 있다.

특히 만 11세 이상 전주시민과 유아(만4세~6세)들의 경우 누구나 이곳에 방문하면 무료로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 총 7가지 항목에 기반한 과학적 측정 및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이 제공되며, 체력 향상을 위한 '비만탈출' 수업 등 전문 운동처방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체력 증진 교실도 운영된다.

이용 방법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고, 예약한 날에 화산체육관 2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1일 전주 송천동 늘푸른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늘푸른임대아파트 활용 방안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가 21일 전주 송천동 늘푸른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늘푸른임대아파트는 시설 노후화 및 미혼여성 근로자 주거시설 미적합 등의 이유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을 계

획 중이다.

정성길 위원장은 "늘푸른임대아파트가 복합커뮤니케이션, 민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탈바꿈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신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